

지역 소식통

고창군 폐농약 수거 추진

고창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거나 버려진 폐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폐농약 수거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올해 7,400만원을 들여 농약빈병 수거함과 폐농약 안전보관함을 14개 읍·면사무소에 설치했다.

폐농약 수거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농약빈병은 마을에 설치된 농약빈병 수거함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보관 중인 폐농약은 밀봉처리 후 읍·면사무소에 전달하면 된다.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관계자는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정착되면 수질과 토양오염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자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친환경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부안군은 친환경 농업 인증농가를 격려하는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군비 3000만원을 들여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자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들었던 자부담(사업비의 20%)을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게 지원해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안군 친환경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신고한 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기존 3ha 이상 집단화대 비를 재배하는 단지에 지원했던 친환경 농업단지 자체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소농가와 벼 재배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 재배 친환경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으로 변경해 전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추 탄저병 초기방제”

정읍시농기센터, 장마철 철저한 농작물 관리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는 최근 장마전선 북상이 예고됨에 따라 고추 탄저병 방제와 철저한 농작물 관리를 당부했다.

고추 탄저병은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아질 때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병원균 포자는 비바람, 폭풍우, 태풍 등에 의해 전파되기 쉽다. 잦은 비가 내리면 병원균의 포자는 빗방울에 의해 튀어 전파되고 고추밭 내부의 습도가 높아져 수확기 전부터 탄저병 발생으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탄저병은 주로 열매에 발생하며 발생 초기에는 연한 갈색의 작은 반점을 보이다가 움푹 들어간 원형 증상으로 병반이 점차 확대되어 피해가 심한 경우 수량이 30% 이상 감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추 탄저병 발생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초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는 반드시 등록된 적용약제로 농약 안전 사용지침을 준수해 방제해야 한다. 병 방제와 더불어 총제벌레와 담배

나방 등 해충 방제에도 소홀하면 안 된다. 특히 6~7월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진딧물과 총제벌레가 전염시킴으로 잘 살펴 방제하고 병에 걸린 식물체는 뽑아내 전염을 예방해야 한다.

시는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추의 생육 조사와 병해충 관찰포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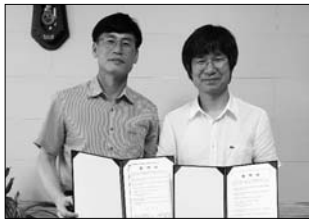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찰포 조사자료를 통해 생육상황에 맞는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등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방제 지도해 고품질 고추 생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건강한 가족 문화' 협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읍시 장애인복지관은 최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호 협력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김신철 관장과 임내규 센터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해 상호 간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복지관은 장애를 가진 다문화가족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의 이해를 돕고자 센터의 업무지원이 필요하다.



센터는 장애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두 기관은 업무 효율과 이용자 만족을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가족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한 상호호의 및 협력, 전문인력교류 협력, 사회복지 분야 공동 사업 개발 및 수행 등으로 두 기관 간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김신철 복지관장은 "협약을 통해 서로의 업무를 지원받게 됐다"며 "장애를 가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청소년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운영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1박 2일간 내소사에서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형 프로그램 '청소년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성찰 및 학교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1박 2일간 내소사에서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청소년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안경찰서, 1388청소년지원단과 연계해 기획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그룹으로 운영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자연활동 및 수행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심리검사, 진로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위축됐는데 자연활동으로 마음에 비법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공양할 때 묵언과 108배 할 때의 다리 저림은 잊지 못 할 추억이 될 것이다"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1박 2일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처음 짓는 고추 농사도 이것만 알면'

정읍 김선희 농촌지도사 강의기법 경연대회 장려상 영예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주최 '제12회 농촌진흥공무원 강의기법 경연대회'서 김선희 농촌지도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연대회는 농촌진흥공무원의 교육 훈련 전문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영상 강의 심사를 진행했다.

대회에는 전국 농촌진흥기관에서 선발된 17명이 참여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김 지도사는 '처음 짓는 고추 농사도 이것만 알면'이라는 주제로 처음 고추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핵심적인

재배기술을 통해 고품질 다수확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의했다.

이에 교수준비, 전개, 학습기술, 태도, 학습성 등 평가기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 지도사는 "앞으로도 고추작목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창의적인 강의 기법을 갖춘 현장 전문가로 양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열린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가 지난 3일 11차 행사(고창북부자, 수박 판매)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고창 농수산물 드라이브스루 '대박'

11차에 걸친 총 판매액 1억여원... 지역농가·소비자 큰 호응

재난시대 농산물 유통의 고창형 해법. '완판'을 이어갔던 고창 농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행사가 총판매액 1억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열린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가 지난 3일 11차 행사(고창북부자, 수박 판매)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지난 4월 딸기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고창군농수산물유통센터, 선운산도립공원 등에서 열린 행사는 2개월 간 딸기, 바지락, 장어, 표고버섯, 쌀, 수박, 복분자 등 고창에서 재배된 13종 농수산물을 판매했다. 누적 판매액은 1억원을 훌쩍 넘겼다.

드라이브스루는 지역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지역농가는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면서 물량이 냉장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고창군에서 팔 기회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한 소비자는 "냉장고를 비우고 매주 금요일만 되길 기다렸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합당한 가격에 차에 탄 채 구입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활짝 웃었다.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이영운 과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지렛대인 고창군민들의 위대한 울림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모든 혁신적 수단과 창의적 대안으로 재난시대 농산물 유통의 고창형 해법 찾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